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금융산업 內 자산운용사 역할 및 과제에 대한 제언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이현승

2023.5.30

KB자산운용

Contents

Ⅰ. 경영환경 변화

Ⅱ. 자산운용업의 역할

Ⅲ. 자산운용업계 주요 과제

Ⅰ. 경영환경 변화

1. Macro 환경의 악화 및 불확실성/변동성 증가

2.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3. 핀테크 업체의 거센 도전

2023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경기침체와 디커플링 심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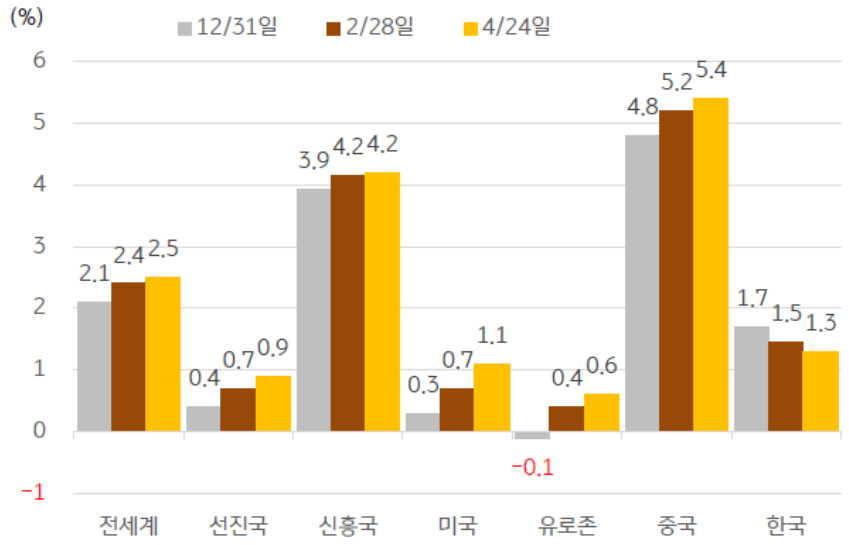
세계경제는 미국·유로존·중국 성장 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만한 경기침체 전망이 지속

· 1980년 이후 IMF 세계경제 성장률 하위 25% 수치는 2.7%이며, 4월 성장 전망 2.5%는 매우 저조한 성장 의미

대규모 내수시장 확보 지역과 수출 의존이 높은 지역 사이의 디커플링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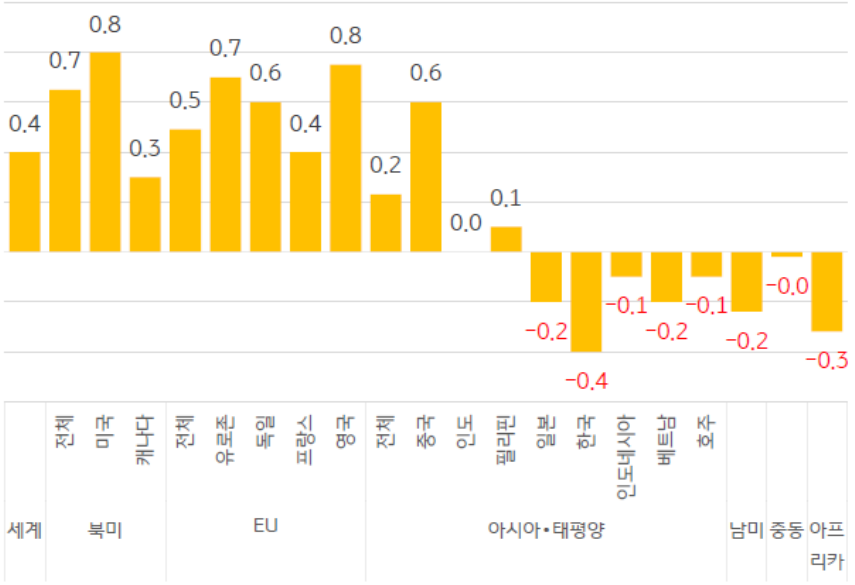
·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 큰 내수시장 갖고 있어 성장전망 상향되고 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약한 지역에서는 2023년 성장전망 하향 추세

2023년 세계경제의 GDP 성장 전망 변화



자료 : Bloomberg

2023년 국가별 GDP 전망 변동('22년말~'23.4.24)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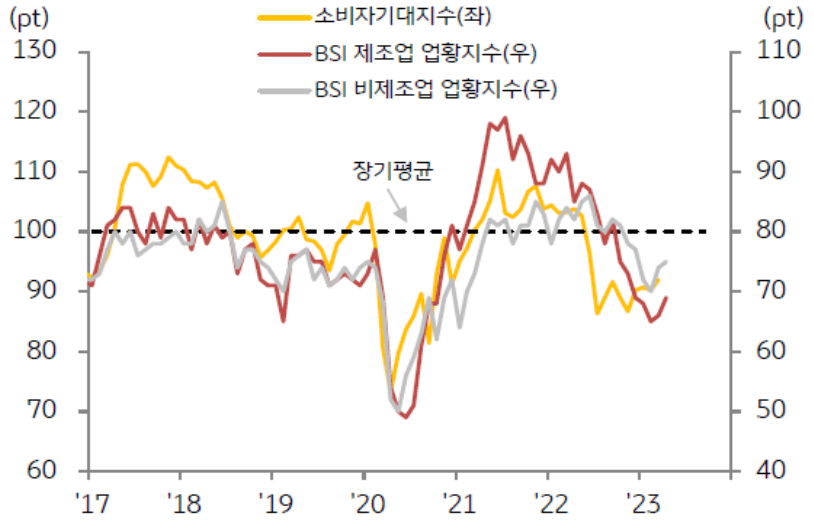
(출처) KB경영연구소

2023년 하반기 국내경제는 불확실한 경제·금융 환경 지속 예상

- 대내외적으로 고금리 정책과 재정건전화 기조 지속, 자국 우선주의, 부동산가격 하락과 금융부실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 민간소비는 심리 부진 완화, 소매판매 반등 등 2022년 4분기 대비 소폭 개선. 다만, 고금리와 실질구매력 감소로 점차 둔화 전망
- 국고채 금리는 금리동결로 인해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시기별로 부각되는 이슈에 따라 변동성 확대

· 「경기침체 완화 vs. 금융위기 발현」이라는 상반된 이슈 중 어느 것이 부각되느냐에 따라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될 위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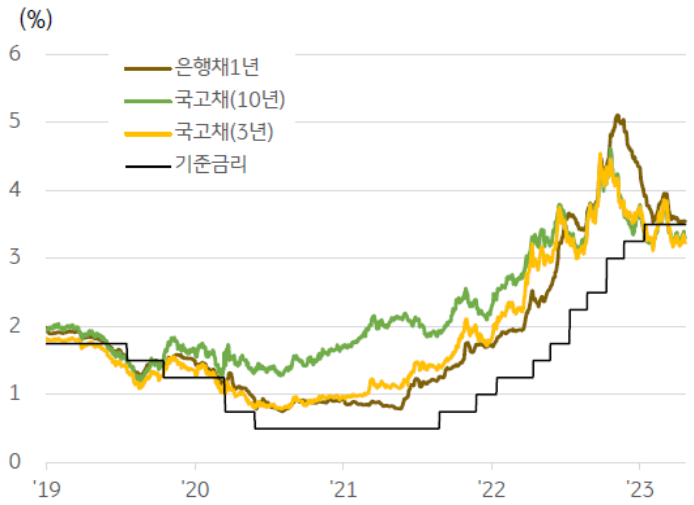
소비자기대지수와 기업업황지수



주 : 소비자기대지수 : '22.4Q 평균 88.6pt → '23.1Q 평균 91.0pt(3월 92.0pt)
제조업 업황전망 : '22.4Q 평균 72.3pt→ '23.1Q 평균 66.3pt(3월 6.0pt)→ 4월 69pt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국내 주요 금리 추이



자료 : 민평 평균, 인포맥스

(출처) KB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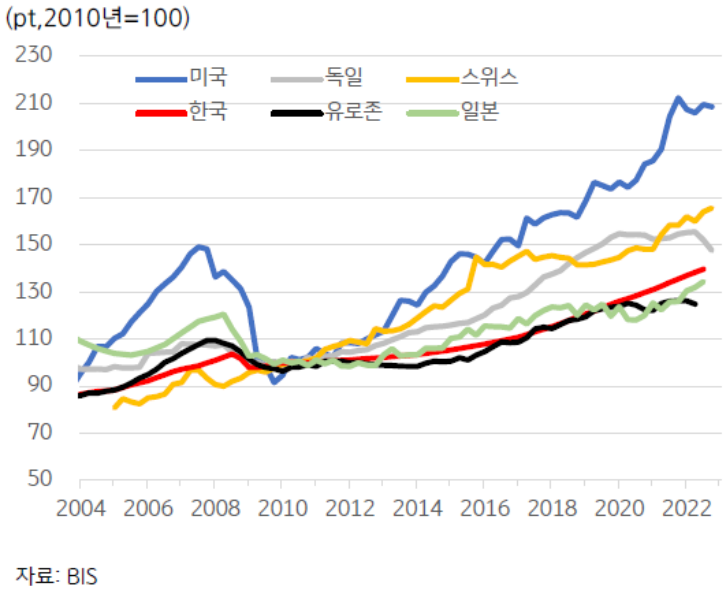
올 상반기 SVB, CS 등 은행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 리스크 확대 우려 존재

美 중소형은행 위기와 관련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

·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주거용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크고, 상업용 부동산대출이 중소형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점이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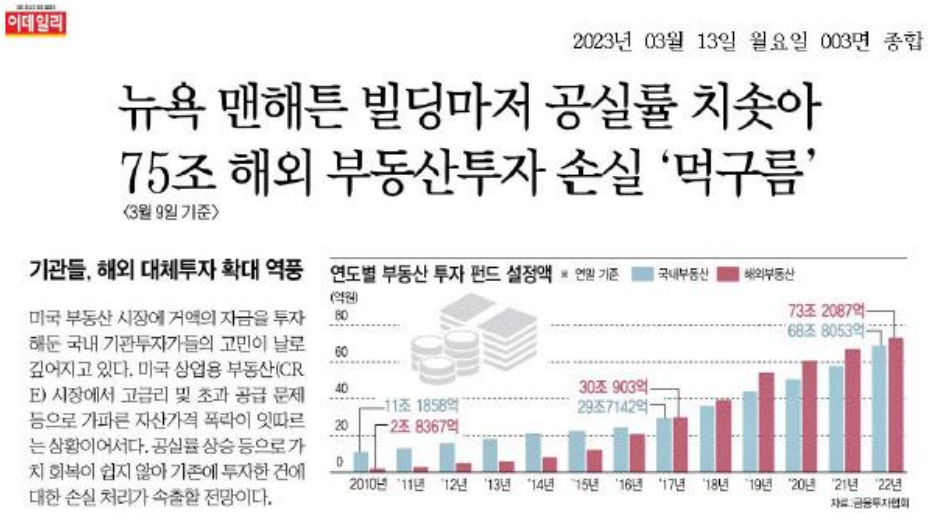
높은 금리에 따른 금융 스트레스 상황, 부동산 등 실물가치 하락은 국내 운용사들에도 위험요인이며,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확대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가격지수



자료: BIS

해외부동산 손실 관련 기사



이데일리

2023년 03월 13일 월요일 003면 종합

뉴욕 맨해튼 빌딩마저 공실률 치솟아
75조 해외 부동산투자 손실 '먹구름'

〈3월 9일 기준〉

기관들, 해외 대체투자 확대 역풍

미국 부동산 시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둔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에서 고금리 및 초과 공급 문제 등으로 가파른 자산가격 폭락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다. 공실률 상승 등으로 가치 회복이 쉽지 않아 기존에 투자한 건에 대한 손실 처리가 속출할 전망이다.

연도별 부동산 투자 펀드 설정액 ※ 연말 기준 국내부동산 해외부동산

(억원)

80
60
40
20
0

11조 1858억
2조 8367억
30조 903억
29조7142억
73조 2087억
68조 8053억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자료: 금융투자협회

(출처) KB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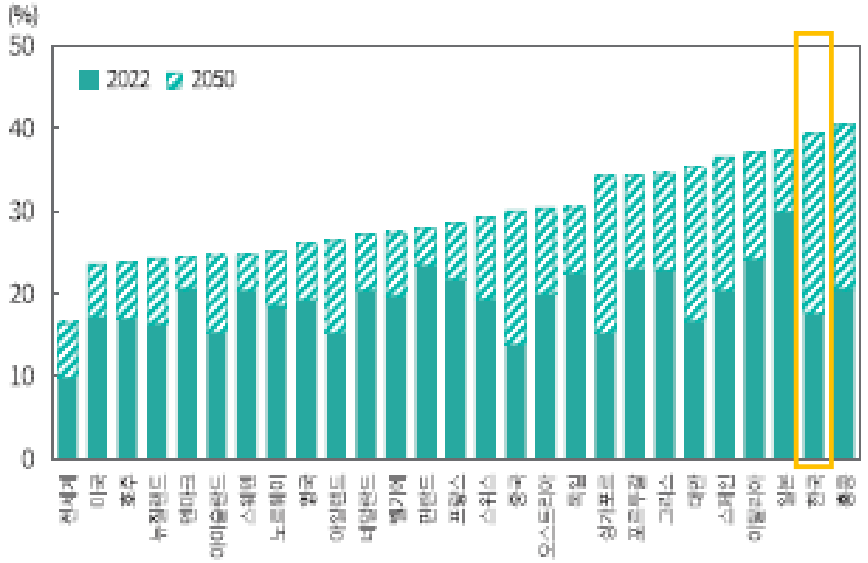
고령화 사회 진입時 실물, 금융, 기업, 사회보장 및 복지 등 경제 전방에 다양한 파급효과 전망

출산율의 하락, 기대수명의 증가 등에 따른 고령화는 미래 세대의 노년층 부양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

· 노동의 양적 투입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생산가능인구 보완하는 인구정책,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제도 개선 시급한 상황

기대수명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안정적 현금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 니즈는 자산운용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 가능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



주 : 2022년 UN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 기준
자료: UN

(출처) KB경영연구소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한계

①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한계**

- 적정노후소득 수준을 소득대체율 70%로 가정(OECD)하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30~35%(기초연금 10%포함)로 예상되고, 법정소득대체율인 40%에도 미달함

② **(퇴직연금 한계) 현실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한계**

- 임금근로자 중심
- 퇴직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이 13%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합산할 경우 43%~48%에 불과

③ **(부족한 노후소득 수준) 목표 소득대체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22%~27%가 부족**

(출처) 보험연구원,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2019.9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100세 시대 대비 안정적인 노후소득수준 유지를 위해 고객들의 금융 니즈 확대 예상

| 고객들이 요구하는 금융정보의 양과 질이 확대되고 보다 개인화된 금융 솔루션에 대한 요구 증가

· 공적연금만으로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노후 소득으로 자산증식에 대한 관심 확대,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한계 인식

| 세대(연령)별·목적별·용도별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고객들의 욕구 충족 필요

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고객들의 금융 니즈

내게 필요한 금융 정보	•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 • 자산 포트폴리오 조언 • 자산운용 컨설팅 지원 • 선택형 유료정보 서비스
내게 맞는 금융 상품	• 생애 생활자금 안정화 • 간병 및 실버타운 입주 • 해외투자 및 결제 편의 • 고령화된 베이비붐 세대
내 재산의 리모델링	• 목적부 자산축적 상품 • 실물 → 금융자산화 상품 • 실물연계 금융상품(대체투자상품) • 자산축적이 부족한 싱글족
편리한 금융거래	• 고객참여 상품 제조·조합 • One-stop 범금융거래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과 고객중심 자산관리서비스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노후자산의 적정인출)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노후소득의 불안정성 해소	• 다양한 리스크 헤지상품 개발·활용 • 실물자산의 유동화 등 지원 • 노후건강 보장 수요에 맞춘 상품(장기간병보험 등) 개발 및 판매 + 보험금 지급체계 정비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 예대업무 중심에서 탈피해 자산가치 증식+자산가치 보전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 판매인프라 개선,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
신뢰상실 위험에 대한 대응	• 불건전영업행위 차단, 소비자보호 원칙 준수 • 고령화시대에 맞는 금융교육 (financial counseling & coaching)

(출처) KB경영연구소

플랫폼/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핀테크/빅테크 업계, 기존 금융회사에 위협으로 등장

- **금융산업은 과거 규제 산업 내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영업권을 향유해 왔지만, 현재 파괴적 혁신 가속화로 새로운 경쟁상황에 직면**
  - 즉, 자본기술, 아이디어, 속도로 무장한 신규 경쟁자(핀테크/빅테크)등장으로 기존 금융업의 가치사슬 와해하고 고객 효용 증대 경쟁
- **국내의 경우 카카오/네이버, 해외의 경우 아마존/애플/알리바바/텐센트 등이 대표적인 금융서비스 진출 빅테크 업체**
- **다만, 전통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間 경쟁 구도 속에서도 M&A, 지분투자 등을 통한 협업 추진**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위협

(출처) 'Bye Bye Banks?' (The Financial Brand, 2015.7)

주요 빅테크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 현황 (2020.9월 기준)

구분	핵심사업	지급결제	신용·대출	예금	자산관리	보험
Amazon	전자상거래	Amazon Pay	Amazon Lending	-	-	Amazon Protect
Apple	스마트기기 제조·판매	Apple Pay	Apple Card	-	-	-
Facebook	SNS·광고	Messenger Pay	-	-	-	-
Google	검색·광고	Google Pay	Google Tez	-	-	-
Microsoft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Microsoft Pay	-	-	-	-
Alibaba	전자상거래	Alipay	MyBank	MyBank	Yu'e Bao	Xiang Hu Bao
Tencent	온라인 게임 개발·운영	TenPay	WeBank	WeBank	LiCaiTong	WeSure
Baidu	검색·광고	Baidu Wallet	Baixin Bank	Baixin Bank	-	-
Vodafone	이동통신	M-Pesa	M-Pesa	M-Shwari	-	-
Mercado Libre	전자상거래	Mercado Pago	Mercado Credito	-	Mercado Fondo	-

자료: FSB(2019b), CB Insights, 자본시장연구원

(출처) KB경영연구소

Ⅱ. 자산운용업의 역할

1. 신뢰 회복 기반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

2. 자본공급자로서 공공재 역할

자산운용업계 포함 금융업의 전반적인 신뢰 저하는 고객의 투자 유인 저해 및 성장 방해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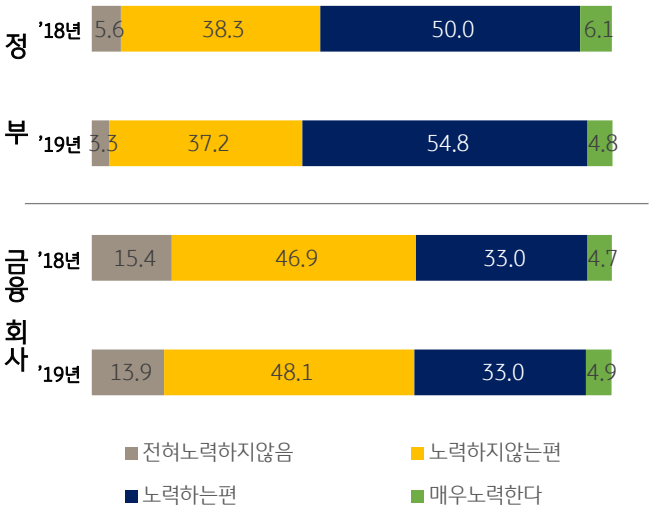
|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과반에 이르는 국민들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변

· 금융의 상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금융공급자 위주의 금융정책으로 인한 소비자보호의 취약성 등에 기인

| DLF·사모펀드 사태 등 불완전판매 이슈로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확산

금융회사 노력에 대한 소비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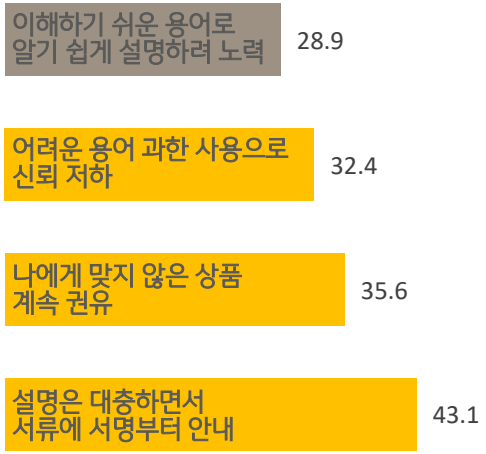
"정부·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노력한다고 생각?"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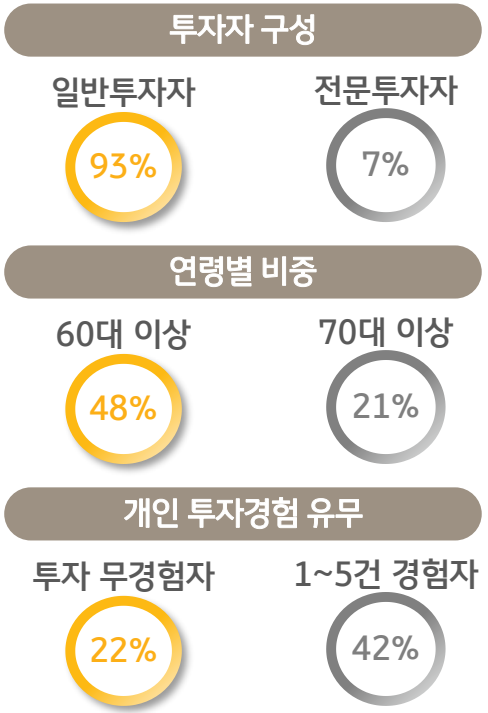
(출처) KB경영연구소

"상품상담·계약과정에서 판매직원과 어떤 경험?"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1)

DLF 사태 피해자 특성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1)

금융산업의 핵심은 고객과의 관계 지속을 위한 신뢰를 얻는 것

신뢰 상실은 고객 이탈/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생존과 직결, 지속가능한 성장은 고객과의 신뢰가 초석이 되어야 함

· 장기간 침체된 개인 공모펀드 시장 역시 금융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 하락과 연관되어 있으며, 한번 무너진 신뢰 회복의 어려움 방증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금융 소비자 보호	고객 정보 보호	고객 수익성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청약철회권, 징벌적 과징금)	데이터 3법 시행	고객 수익성과 금융회사 성과 연동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고객 정보 보안 조치 강화	고객 가치 지표 신설

신뢰 회복에 기반한 효율적 자산운용 및 자문 역량 제고를 통한 고객 자산의 '안정적인' 증대가 자산운용업 본질

고객의 신뢰성 회복과 중장기 수익 안정성 유지를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중위험·중수익 추구 상품/자산관리수단 제공에 초점

- 상품의 설계와 판매 및 경영전략 등 전 과정에서 단기적 이익 추구를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고객 접근 필요
- 단기적 시각에서 상품 판매의 회전율을 극대화하여 특정 섹터/부문의 쏠림현상 야기 및 단기 수수료 수익 추구를 지양하고, 고객의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 회복 필요.
  결국 고객의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탁고 확보로 회사의 수익성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
- 시황이나 단기적 유행에 편승한 고위험·고수익 특성의 상품은 제한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 투자자산의 범위를 다각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투기성 자금의 투자성 자금으로의 전환으로 건전한 자산증식을 위한 운용업계 노력 필요

|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직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경향 高. 일명 '빚투' 행태도 여전

·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높은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빈도의 단기적인 투자로 손실 가능성 큼

| 직접투자 중심의 투자문화를 펀드, ETF, 랩어카운트 상품 등을 통한 간접·분산투자 위주로 바꿀 수 있도록 운용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간접투자로의 유인책 지속 발굴, 업계 자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규제/제도 개선 건의, 건전한 투자 문화 계도 노력 등

개인투자자 관련 기사 (매일경제 5.16日)

'빚투 후폭풍' 거셌다…'하한가 폭탄' 코로나 이후 최대

올해 들어 하한가 59회로 치솟아 … 작년 3배 육박

올해 국내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한 횟수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테마주 열풍과 '빚투(빚 내서 투자)' 반대매매 여파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 관련 기사 (매일경제 5.1日)

겁없는 서학불개미…美 3배ETF에 1조

반도체·천연가스 가격 3배 추종 초고위험 상품

SVB 등 파산위험 美은행株도 2천억원 순매수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초(超)고수익을 좇아 날이 갈수록 위험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에 상장된 3배짜리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는 단기간에 조단위 뭉칫돈이 몰렸다.

국가적 난제 및 패러다임 대변환의 가속화로 금융사의 Capital 지원 필요 증가

| 단순한 자본의 공급, 금융거래 지원을 넘어 금융인프라 기반 사회를 바꾸는 'Change agent'로 역할 확장

· Capital 지원 필요 영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확대

| 자산운용사 역시 자본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이 수반되어야 함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필요 자본 증가

- 사회문제 : 저출산, 고령화, 신규 취약계층 확대 등
- 환경문제 : 지구온난화 등 환경 위협의 현실화

대규모 자본 투입 불가피한 패러다임 대변화 연쇄 발생

- 스마트시티, 탈탄소 전환 등
- 극지/심해 자원, 차세대 신소재 등 육성
- 가상세계, 우주까지 경제 공간 확장

국가 지원만으로는 역부족, 금융사는 막대한 영향력 행사

- 고령화 등으로 정부 공공 지출 상승,
  국가 채무 증가 등 한계 존재

Ⅲ. 자산운용업계 주요 과제

1. 디지털 금융 혁신

2. 장기 투자 문화 구축

3. OCIO 시장 확대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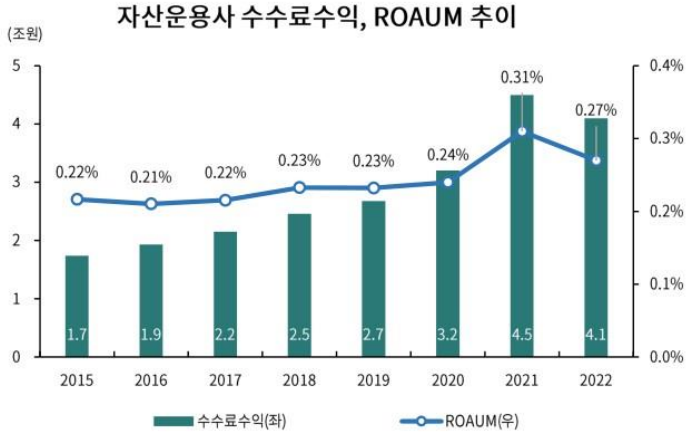
4. Globalization

자산운용시장 성장 둔화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술 투자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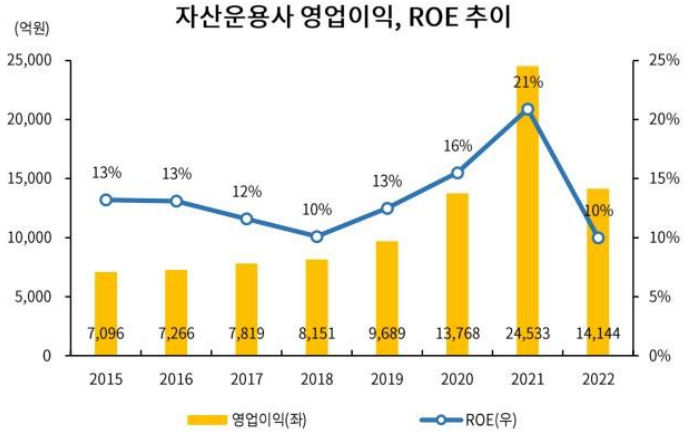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경쟁 심화, 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AI, 빅데이터 관련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운용사 간 수수료 경쟁 격화, ETF 등 패시브 상품 점유율 확대 등으로 운용사 평균 운용보수 지속 축소
(공모펀드 시장 평균 보수율 2019년 0.61% → 2020년 0.54% → 2022년 0.47% 등)

·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운용 비용은 지속 증가 中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출처) 금융투자협회

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을 위한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투자 강화

포트폴리오 관리 및 마케팅 분석 등 AI 활용을 통한 수익성 강화

· 펀드의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보고서 작성, 마케팅 자료 분석 등을 자동화하여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 뉴스, 웹 검색 기록, 금융시장 환경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운용 포트폴리오 반영을 통한 펀드 성과 개선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AI, 빅데이터 활용 사례 : 다이렉트인덱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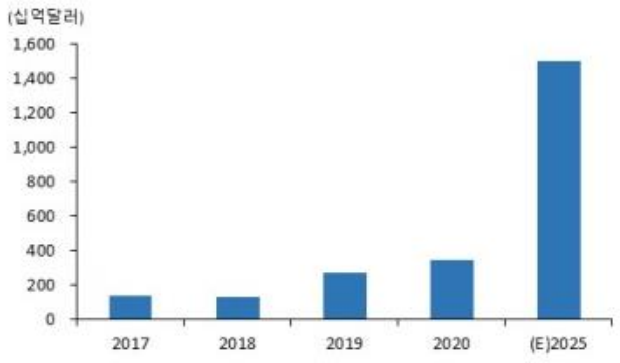
Vanguard, 다이렉트인덱싱 활용 비용 절감 및 고객군 확대 등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공

- 다이렉트인덱싱 플랫폼 Just Invest를 통해 리스크 노출도와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
- 자본소득세 최소화를 위한 주기적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손실 종목 매도 및 유사 종목 편입 등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구성하며 투자자 요청 시 추적 오차, 투자 수익률, 절세 금액 등 투자 결과 리포트를 빠르게 생성하여 제공
- 또한 AI를 통한 운용 과정 자동화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인력 절감 실현 및 ETF보다 높은 수수료로 수익성 확보

이후 BlackRock, Fidelity Investment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다이렉트인덱싱 사업 진출 확대

- 미국에서는 향후 2025년까지 고액자산가의 ETF 등 패시브 투자의 20~25%를 다이렉트인덱싱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

다이렉트인덱싱 글로벌 시장 규모 추이



(출처) Oliver Wyman,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다이렉트인덱싱 핀테크社 인수 현황

(출처) Javelin Strategy & Research

국내 일부 증권사/운용사의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오픈으로 다이렉트인덱싱 시장 태동

국내 다이렉트인덱싱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 확보 및 서비스 오픈 활발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국내 주식도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손익 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니즈 증가 전망
- 올해 1월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NH다이렉트인덱싱' 베타 서비스 시작하며,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덱스 서비스 출시
- 4월, KB자산운용 또한 운용사 최초 다이렉트인덱싱 'MyPort' 엔진 개발 및 KB증권을 통해 서비스 오픈
- 현재 한화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도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출시 검토 실시

KB자산운용은 하반기 이내 해외 지수용 다이렉트인덱싱 엔진 개발 등 기능 고도화 예정

- 해외 지수용 다이렉트인덱싱 엔진 개발 및 미국 대표 유니버스 추가 (S&P 500, 나스닥100 등)

빅데이터/AI기반 투자자별 Tailored 상품 제공

빅데이터/AI 기술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자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 AI를 활용하여 운용과정 자동화 및 리스크 노출도, 투자 성향에 맞춘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생성
- 해당 기술 활용 다이렉트인덱싱 등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및 LDI•OCIO 등 기관 고객 대상 솔루션 비즈니스 확대

AI 도입, 디지털 인프라 확장으로 데이터 분석 및 비용 절감 방안 강구

-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운용지시, 마케팅 문서 작성 시 컴플라이언스 업무 부담 가중되는 등 관련 비용 증가
- 인공지능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마케팅 자료 제작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점검 강화 등 업무 활용 확대

일반 공모펀드 시장 부진 지속 및 ETF, 연금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수요 증가 지속

MMF, ETF를 제외한 국내 일반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 정체 가운데 ETF 자금 유입 지속

- 공모 펀드 내 ETF 비중(%) : 2020년 20% → 2021년 26% → 2022년 29% → 2023년 29%
- 최근 직접투자 열풍과 맞물린 개인의 적극적인 자산운용 니즈 증가에 힘입어 저비용 및 거래 편의성을 강점으로 ETF 수탁고 급증
- 과거 국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시장대표 ETF 중심에서 벗어나 업종 섹터, 액티브, 해외 ETF 중심 상품 유형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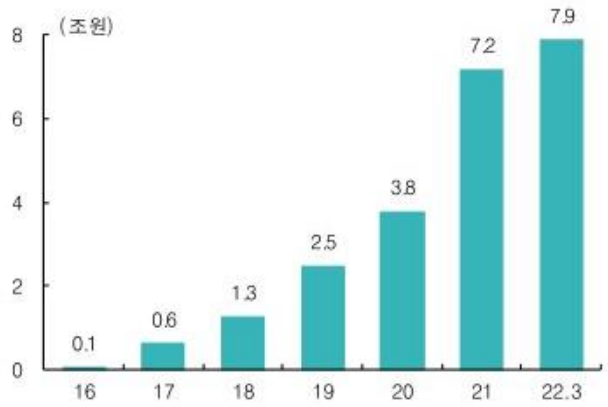
고령화 및 초저금리 상황 下 수익률 제고 목적의 펀드 상품을 활용한 TDF 등 연금펀드 수탁고 증가 지속

- 연금 가입자들의 원금보장형 상품에서 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이동하는 '연금 머니무브 현상' 가속화
- 특히 은퇴 이후를 대비한 상품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해 자산을 운용해 주는 TDF 수탁고가 빠르게 증가 中

국내 ETF 순자산가치 및 상장종목수 추이

(출처) 한국거래소

국내 TDF 설정액 추이



(출처) 머니투데이 자료

장기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투자자 교육 필요

공모펀드 지속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 지원 및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 규제 완화 필요

· 펀드는 상품 특성 상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장기투자시 세제 혜택 지원 등 정책적 장기투자 장려 환경 조성 필요

· 최근 투자 주체인 MZ세대들은 상품 투자 시 편리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는 반면, 펀드 가입시 복잡한 가입 절차로 진입 장벽이 높아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주식과 같이 빠르고 쉽게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필요

펀드 판매사 중심 개인 고객 Biz에서 장기 분산 투자를 유도하고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춘 상품 추천 필요

· 유행에 편승하는 단기 투자를 지양하고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고객용 투자자교육 확대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품 공급 및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확대

장기•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펀드 육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기반 예금 대비 꾸준한 초과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자산운용 업계 전반에서 양호한 성과 시현 필요

· 최근 연금시장 급성장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운용사별 공모펀드 상품 라인업 강화 등 적시 상품 공급 확대

공모 액티브펀드 대상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확대로 투자자의 Risk-Return Profile과 펀드의 운용 방향 Align 필요

· 액티브 펀드는 펀드의 운용 방향에 따라 시장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펀드의 운용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 필요

· 자산운용사는 공모 펀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전·후 Seamless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과 맞물려 자산운용사 중심의 OCIO 시장 확대 가속화

| 연기금 및 민간기업 등의 잉여자금 위탁 운용 수요 증가 및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OCIO 성장 가속화

·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100조원 규모의 국내 OCIO 시장이 2030년 10배 수준인 1,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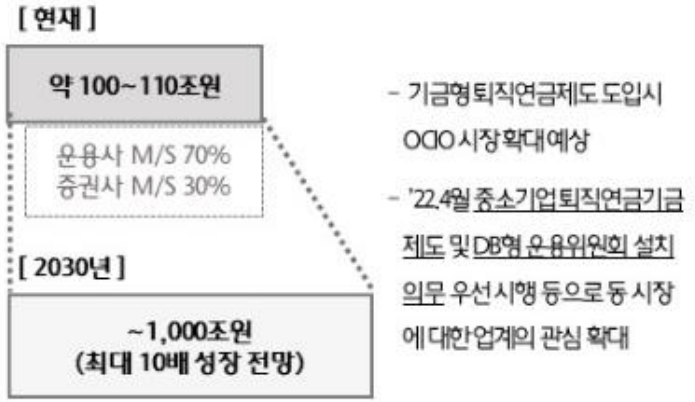
| 2022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의무 제도 확대

· DB형 퇴직연금, 법 개정에 힘입어 현재 2조원 규모에서 최대 200조 규모까지 확대 될 예정으로 자산운용사 관심 확대

| 초저금리 상황 지속 하에서 채권 위주의 투자 한계를 느낀 보험사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일임 형태의 운용사 위탁운용 증가

· 특히, 금융 그룹 소속 보험사의 경우 시너지 확대 차원에서 그룹 내 보험사 자산 운용체계를 계열 운용사로 단일화하는 추세 지속

국내 OCIO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사 운용자산 규모 및 투자일임 수탁고 추이

(*주) 보험사 운용자산 규모는 일반계정 운용자산
(출처) 금융투자협회

‘1% 수익률’ DB형 퇴직연금, DB OCIO 펀드로 운용 효율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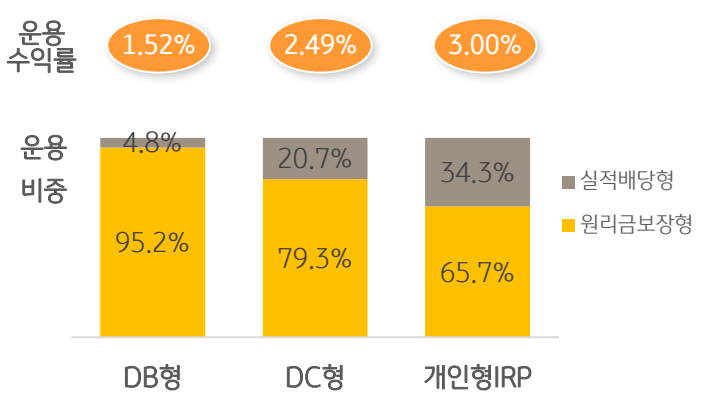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00조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DB형으로 1%대의 저조한 수익률 기록

- 현상 개선을 위해 2022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용 목적과 목표 수익률, 운용 성과 등을 명시한 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 다만, 신규 규정 사항으로 각 기업들은 운용 관련 전문인력 부재로 위원회 구성 및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낌

관련하여 다수 운용사들이 해당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조직을 구성·개편하고, OCIO 특화 펀드 출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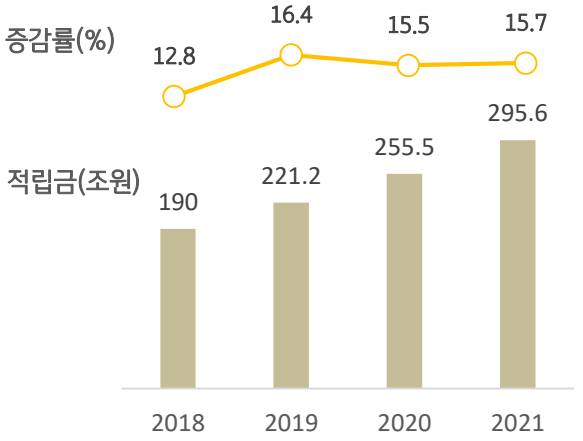
- 기업별 평균 연령대나 임금인상률·근속 연수 등이 상이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Customized된 DB OCIO 펀드로 시장 확대 예상
- 목표 수익률 3~5%대의 공모 펀드 및 각 사업장에 특화된 OCIO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OCIO 시장 대응 추진

퇴직연금 제도별 운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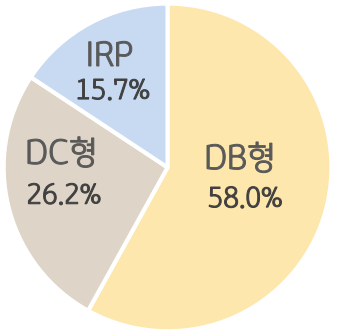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2021.12 기준

퇴직연금 연도별 적립금 및 증감률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2021.12 기준

제도유형별 구성비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2021.12 기준

기관 대상 자문 확대를 통한 OCIO 자산배분 솔루션 어드바이저로 포지션 확장

국내 연기금 OCIO 시장에서는 5대사의 견고한 과점 구조 형성

· 5대사 위주 공적기금 OCIO 주간사 선정 경쟁 격화로 후발주자 진입 난항

· 그 외 증권사/운용사별 OCIO 조직 확대 등 공공기금 OCIO 유치를 위한 경쟁 가속화

사업자별 연기금 OCIO 시장 점유율 (AUM기준)

(출처) McKinsey 보고서

연기금 OCIO 外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및 민간기업 수요 증가로 다양한 OCIO 서비스 니즈 확대 전망

· 단기적으로 OCIO 펀드 트랙레코드 축적 및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 특화, 종합투자솔루션 제공 등 사업자별 차별화 요소 강화 필요

일반기업 대상 OCIO/LDI 기반 포트폴리오 관리 & 초과 수익 달성 증대

· 기관별 유휴자금에 대한 운용을 필요로 하는 다수 법인과의 접점 확보를 위해 운용사별 OCIO 직접 마케팅 기능 확대

· 고객 니즈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고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등 기업 고객 대상 운용 솔루션 비즈니스 확대

국내 자산운용사 중심 해외 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국내 자산운용 시장 성장 둔화 진입으로 인한 지역적 분산 투자 필요

· 국내 시장 경쟁 격화 및 지속된 보수 인하 등으로 영업 수익성 하락

· 국내 고객 자산 기반 트랙레코드를 활용하여 해외 현지 시장 진출 필요

최근 금융투자업권에서 자산운용사 중심 해외 진출 큰 폭으로 증가

· 증권 : 93개(2010년) → 69개(2022.9월), △26% 감소, 자산운용 : 22개(2010년) → 67개(2022.9월), +205% 증가

업권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추이

(출처) 금융감독원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투자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인력, 제도, 문화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내 시장에서 쌓아온 트랙레코드 및 운용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선진 운용사 수준의 투자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時 현지 시장 진출 용이
- 글로벌 투자영역 확대로 운용사별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및 수익성 확보 가능
- 세계 각국의 우량자산을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 제공을 위한 운용사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필요

국내 자산운용 시장의 상품 유니버스 다각화를 위한 글로벌 진출 확대

해외 운용사 M&A, 지분투자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통해 국내 고객의 글로벌 투자 수요 흡수

- 국내 일부 운용사는 선진시장 ETF운용사 인수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선진국 ETF 직접 투자 수요 기반 인수 운용사 규모 확대
- 글로벌 진출로 국내 투자자의 Outbound 투자 수요 충족 및 글로벌 연기금 대상 Inbound 마케팅 통해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확대 노력

대체투자 또한 해외 현지 우량 딜을 직접 소싱 할 수 있는 현지 운용사 M&A 필요

- 해외 우량 딜을 직접 소싱이 가능하고 희소 딜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자금력이 확보된 해외 현지 운용사 인수 필요
- 선진국 위주 해외 인프라/부동산 운용사 인수로 현지 대체투자 Presence 구축 가능 및 투자 리스크 대응 강화

감사합니다.